

# 겨 자 씨

2023년 여름호

Summer

표어 :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예수산책

어스틴한인장로교회

# CONTENTS

## 칼 럼

03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김석근
06 믿음의 기원	엄두간
11 원컨대 이제는 행하옵소서	송흥경

## 간 증 문

22 간증 1	이현재
25 간증2	Paul Cho

## 목 장 소 개

27 시온 목장
----------

## 문 화 산 책

30 서부 전선 이상 없다	김상보
----------------	-----

## 교회 행사 및 소식

35 50주년 기념 특별 부흥회
37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 기도

## 선 교 통 신

40 니카라과 선교
42 페루 선교

AKPC 겨자씨 문서 선교팀  
제 14호 발행일 2023년 6월  
주소 :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전화 : 512-454-1727  
팩스 : 512-454-6888  
이메일 : akpc@akpc.org  
홈페이지 : <http://www.akpc.org>  
발행인 : AKPC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편집 : 양민희, 엄두간, 오선주, 이인권,



#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김석근

오늘 세상이 미치고 사회의 논리 도덕이 무너지고 교회는 세속화하고, 모든 종교가 퇴락하여 그 본질을 상실 내지는 훼손되었다. 인간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대다. 어찌해야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선 기독교의 도덕이 세속문화의 도덕규범으로 교체 되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아 실현의 도덕”이라는 새로운 도덕 코드에로 전환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미국에서 최고의 선은 ‘자아 찾기’이고, ‘자신에게 선한 바 대로 살기이다. 오늘날에도 역시 미국 사회에는 개인주의가 범람하고 있으며, 교회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수백만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신앙에 뉴에이지의 도그마를 접목시켰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적추구를 위해 예수님의 길을 이용하고있다. 세속화가 문화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동안 교회에 다니는 다수는 부패한 자기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현실적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이분법적 신앙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은 성경이 인간문화를 넘어선 도덕적 규범의 원천이며, 그러한 도덕적 진리는 절대적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성인 대다수가 새로운 도덕 코드에 동의하고있다. 그리하여 도덕적 진리가 상대적이 되었다.

여기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도덕”을 살펴보자.

- 자기 자신을 찾는 최선의 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비판해서는 안된다.

- 충만한 삶을 살려면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 인생의 최고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이 즐기는 것이다.
- 자신의 신념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다
- 서로가 허락한 두 성인간의 성적 표현은 무엇이든 수궁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변질되고 타락한 현세의 도덕적 상태를 염려하면서도 그것에 함몰되어 도덕 자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살펴본다면, 일반인의 눈에도 그 정체성을 상실한 단체, 즉 복음을 잃어버린 종교집단에 불과하다. 모든 여론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언행불일치의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 기독교가 표방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는 좋지만, 그 실상은 상반되는 평가이다.(입으로, 말로만 믿는다는 말이다) (Lip server=신앙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 15,8-9)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는 기독교의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왜 그런가?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이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이르러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가 왜곡되고 훼손되어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십자가가 마음에 위로를 주는 장식품 목걸이로, 종교적 유희의 대상으로, 또는 성공과 번영과 부귀를 보장하는 부적으로 전략했다. 그렇다. 한국교회, 나아가 현대 교회는 복음을 상실했고, 십자가를 잃어버렸다.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다. 십자가는 꺾데기나 장식이 아니라 복음의 정수이자 실체이며 복음 그 자체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힘의 근원이다. 십자가가 그 위상을 상실하면, 기독교는 모든 힘을 잃는다. 십자가가 장식이나 미신으로 전략하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다. 십자가가 종교적 유희와 세속적 가치를 위한 도구로 전략하면,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헌신짝처럼 버린다.

여기서 기독교가 어떻게 왜곡되어 가는지를 살펴본다면, 왜곡 > 축소 > 화석화 > 사멸의 순서를 밟는다. 즉, 십자가에 대한 왜곡은 현실 안주와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 된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왜곡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항거 불능의 아성을 구축한다. 그 결과 십자가의 복음은 번영과 축복의 세속적 복음으로 변질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추종하는 자들은 급진주의자, 혹은 위선의 이상주의자로 매도한다. 이렇게 왜곡된 복음이 대세로 정착되면, 다음 단계로 십자가에 대한 철저한 축소화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된다. 축소화가 진행됨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은 더 이상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특수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선택사항(종교행위)으로 자리매김한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득권층)를 획득한다. 애석하게도 기독교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죄악의 온상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이미 되어 버렸다. 십자가, 고난, 희생, 겸손, 핍박 등의 가치는 외면 당하고, 번영, 성공, 부, 권력, 행복 등의 가치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복음은 문화화 되고 상품화 되어버렸다.

축소화의 다음 단계는 화석화이다. 점점 더 위축되어 생명력을 잃어가는 복음은 세대를 거칠수록 강력해지는 세속화와 교리화의 흐름에 따라 화석화 된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입되는 변질된 복음

에 십자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상실한다. 복음이 화석화 되는 시대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희귀한 존재(골동품, 문화재로 사장되고 만다. 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놓여 사장의 과정으로 접어든다. 한때 기독교가 번성하던 많은 지역, 많은 나라에서 더 이상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기독교는 해체되거나 사멸할 수 밖에 없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희귀해졌고,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기독교 교세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고, 차세대의 기독교 유입이 단절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한국교회는 화석화 말기와 사멸화 초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 20세기 초까지 번성하던 영국교회가 2차대전 이후 급격하게 사멸화 과정을 거친 것 처럼, 한국교회도 한 세대안에 동일한 과정을 거칠 것이 명백하다. 이제는 어떤 미봉책도 빈사 상태의 기독교에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부흥과 대 각성의 물결이 기독교를 뒤엎지 않는 한, 기독교의 사멸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인다.

사멸의 쓰나미에 휩쓸리기 직전의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종교의 부활이다. 기독교의 근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재 발견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다.

터(기독교)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시 11:3)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불변의 터를 새롭게 닦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명이다. 현재의 세상풍조, 유행, 리듬의 찬양, 형식적인 기도와 의식화 교리화의 설교 등 습관적이고 세속화된 예배의식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참 예배로 돌아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또 다시 온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 믿음의 기원

## 엄 두 간

4월 9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시대를 여셨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 다시 사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52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현존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회로 인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적이 당황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라’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진 사이비 종교에 대한 고발백서를 보면서 교회의 엄청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가려진 역기능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뇌교육이라는 말을 어린 시절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위상숭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마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원리나 가르침에 빠져들어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의구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처럼 인간은 그 사고의 흐름이 종잡을 수 없는 복잡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사실상 그 사람의 사고 체계는 그에 따라 결정되고 특정한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매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온화한 사람들에게 둘러 쌓인 사람은 그 성품이 온화하고 그 감성이 항상 아름답게 표현 될 것이고 매일 거친 말만 듣고 투쟁하며 사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의 입술에도 거친 말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행동이 무자비하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사람은 오히려 단순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되기 위해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결정하는 기저에는 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우리의 사고체계와 그러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무

엇인지, 그리고 그런 인자가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것들을 분별하고 활용하여야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역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한번쯤 들어 본 적이 있을 텐데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닫힌 계(에너지의 유입이 차단된 시스템)에서는 그 내부의 질서가 항상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운동한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집을 닫힌 계로 보았을 때 가스가 어디선가 새고 있다면 이 가스가 질서 있게 한곳에만 머물지 않고 집 전체로 퍼짐으로 인해 질서가 줄어드는 쪽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개스를 한곳에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선풍기 등) 그러한 외부적 간섭이 없을 때에는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닫힌 계는 움직인다는 것이 열역학 제 2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일할 때 보다는 쉴 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최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한다는 개념은 생물의 생명현상 유지에 중요한 기저가 되며 사실상 모든 생명체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생하는 모든 생물들은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스스로의 생명현상을 최대한 지속할 수 있도록 진화하여 온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엔트로피와 사이비 종교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기에 서론이 이토록 기냐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주제를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현생 인류를 이끌어 온 두 가지 중요한 인류사적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인류는 자연을 극복하고 생명현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해 인류는 마음의 안정과 삶의 의미, 그리고 도덕적인 인류애를 완성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인류의 물질에 대한 통제와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가 바로 과학과 종교에 의해 발전되어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존할 수 없는 상호 대치되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고들 합니다. 로마 시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가 지배해 온 세상이 르네상스와 시민혁명 등을 통해 과학 중심의 세상으로 이동하였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는 결코 땄래야 땄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또한 이 둘이 공존했기에 인류의 문명이 오늘날처럼 발전해 온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인류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사고를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가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고 생식을 통해 번식하며 그 종족을 보전하였듯이 인류 또한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생물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발달되어 왔다는 것 외에는 동물들과 큰 차별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간은 타 동물들에 비해 고도의 지능을 통한 사고와 영적인 활동을 하는 등의 특이성을 보이지만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활용되므로 삶의 틀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라는 복잡한 수학적체계를 이용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물리체계를 만들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지만 동물들에게도 기본적인 실험을 통해 배운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동물들도 기초적인 과학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침팬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는 다는 것을 알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사고체계는 동물이나 인류에게 공히 존재할까요?

이렇게 과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매번 활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된다면 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각인 되어있기 때문에 침팬지는 나무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체험적으로 땅은 단단하다는 믿음이 공고해져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마다 다시 실험하고 현상을 파악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땅위에서 자유로이 근심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체처럼 보이는 물체도 사실은 원자수준으로 내려가면 구멍이 송송 뚫린 형태를 띠고 있고 고체와 고체가 만나 서로 지나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즉, 사람이 땅을 밟더라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확률적으로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학문을 매 순간 적용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습득한 자연현상은 그대로 믿음으로 굳어 다음 동작을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물들은 필요이상의 과학 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믿음이라는 사고체계를 발전시켜왔고 그러한 사고체계를 효과적으로 발전 진화 시켜온 생명체들이 적자 생존하여 현생하는 생물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공존할 때만이 성공적인 생명체로 진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믿음은 인류에 이르러 종교라는 형태의 다소 형이상학적인 믿음으로 진화 발전하였습니다. 드디어 인류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이나 감당하기 힘든 슬픔들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는 단계로 까지 진화 발전하였고 종교를 통해 인류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교묘히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믿음으로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발전시켜왔고 마침내는 정신을 조종하는 악랄한 형태에 가지 이른 단체입니다. 흔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정신세계를 조정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포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심리조작기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니다. 종교가 인간의 믿음 성향을 조직화한 사회체계라고 보았을 때 사이비 종교는 그러한 인간의 성향을 악하게 이용하는 단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종교적 특성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단은 종교단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물에게 존재하는 믿음체계를 사회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인류가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물음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 있지만 그 중에 루이스 월퍼트라



는 분이 소개한 믿음의 엔진이라는 표현이 있기에 잠시 소개하고 자합니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그는 “믿음 엔진으로 불리는 이러한 의식의 명령은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진화해왔을지도 모른다. 식량을 구하고, 도구를 만들며, 위험을 피하는 등 생존하는 데 막대한 도움을 줌으로써 본능이 된 것이다”라고 하며 믿음은 생물의 본능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믿고 싶어 하는 성향을 타 동물에 비해 좀더 진화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복잡 다단해 지면서 상당히 많은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에너지 효율면에서 훨씬 나왔으며 그렇게 진화한 인간 집단들의 생존확률이 높았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집단을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지휘에 큰 반항없이 따름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발전시킨 믿음체계의 하나이라 생각됩니다. 즉, 인간은 어떤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지 과학이나 사고를 통해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런 위험상황에 대처하기로 굳어져 있는 어떤 행동을 개발한 그런 집단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웬만한 자연적, 사회적 현상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진화를 한 것인데 위험이 있을 때 마다 일일이 매번 의심하고 사고하는 게 훨씬 비효율 적으므로 웬만한 일은 믿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온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진화생물학자의 한 분이신 최재천 박사님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 현상은 어쩌면 그 믿음 엔진이 조금 고비가 풀린 거라고 볼 수 있으며 혹 좀 더 악랄하게 분석을 한다면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인간의 믿음엔진이라는 본능을 능수능란하게 악용하는 수완이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사이비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걸려 들어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속성을 아주 악랄하게 이용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생물학적 현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믿음 엔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를 들어 보신 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양식이나 사고체계도 유전적인자로 설명이 모두 가능하다는 기치아래 기독교를 없애겠다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최재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교수님은 교회를 출석하시지만 비세례인으로 부인을 따라 설교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인데 그 분 또한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종교에 대해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는데 성도님이 기도를 통해 그 표정이 평안해 지는 걸 보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진화생물학의 어떤 잣대를 대어보아도 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다는 게 그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힘에 대해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분이 도킨스와 직접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종교적인 믿음, 그건 좋은 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킨스하고 그때 얘기할 때 나는 그런 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거를 말살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종교가 가진 순기능이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저하고 막 대립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웬만한 건 우리가 믿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철저히 분석하면서 매 순간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산다는 거는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생각에 당신은 너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왜? 상대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만 흥분해가지고 뭐 유전학자인 네가 설마 기독교의 교리를 다 믿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참 불행한 건 네 아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다…”[3]

그분의 대화 내용에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무지는 용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사유는 죄악이다.” 즉, 생각하지 않는 것 만으로도 현생 인류는 죄악을 짓는 것이라 일갈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을 접하면서,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며, 특히 성도라면 매일매일 영성을 키워 무슨 일에도든지 그 옳고 그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부활절 주일 김준섭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나눔으로 오늘의 내용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2017년 이스라엘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을 통해 인류는 스스로 미래의 신이 되어 스스로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인류는 인류역사에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약 500여명이었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 값으로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 증거할 때 생명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내세울 수는 없을 테니 순교한 사람들의 무수한 생명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난 2천년의 역사를 거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같은 의심 많은 사람도 존중하시고 직접 찾아와 증거하셨습니다. 부활이 주는 또 하나의 확실성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확실한 만큼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함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현재의 우리에게 삶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시며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가 부활로 인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원컨대 이제는 행하옵소서...

송 흥 경

연분홍 치마가 바람에 휘날리는 이 상쾌한 봄날에 바람이 전하는 소식은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풍토에 관한 소식으로, 팬데믹과 함께 우리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산을 바라보고 저 언덕을 내려다봐도 봄은 여전히 봄이지만, 한 구석에서는 외부적으로는 봄 같아 보이지만 반인류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종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 및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믿음과 헌금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만민중앙교회 등 여러 사이비 교회가 오르내리며, 성접촉은 물론, 성착취와 성폭행을 행하며, 십일조를 약속하지 않아 벌을 받고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병들게 된다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끌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부모와 형제간의 연결을 끊는 등 그 패악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목사 이찬수)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통해 기성교회 목사들의 무기력한 설교, 즉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몇몇 성도들은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돌아다니며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신천지, JMS, 오대양, 아가동산과 같은 사기 집단 종교에 빠지고 패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모두가 종말 시대의 징표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토론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말 대신에 ‘그 때’, ‘말일’, ‘여호와의 날’, ‘그 후에’, ‘말세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 1.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은 ‘그때’

- ㄱ)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 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 주님의 미래 통치 ( the mountain of the Lord)

ㄱ)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신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3. '여호와와 날'(the Day of the Lord)

ㄱ) 화 있을 찢 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4.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 '그 후에'

ㄱ)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5. '말세에' (In the last days)

ㄱ) 본문 말 참조

I. 앞날 ( 말세의 징조 ) 을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가로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이니니라 (The end is still to come).
-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 그대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 그대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 거짓 선지자(false prophets)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지리라.
-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he who stands firm to the end)는 구원을 얻으리라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지구를 덮을 때이니라.
-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II. 재림에 대한 예언

-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 III 종말의 징조들

#### 1) 전쟁 이야기

-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 2) 지진 이야기

-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 산돌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 만군의 여호와께서 벽력과 지진과 큰소리와 회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며

#### 3) 기근 이야기

-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 여호와와 말씀에 사망할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찌니라 하셨다 하라.
-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I the Lord have spoken).
-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찌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4) 마지막 날 이야기

-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iv. 신약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들

1)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 마24:7-11)

2) 난리: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3) 전쟁 : 미혹하는 자 ( deceiver)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antichrist)니

4) 핍박 :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 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5) 지진 : (III.종말의 징조들2항참조 )

6) 성도간의 이간 ( Separate between disciples each other)

- 말장이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 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하는 자이다.
-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 하느니라.

-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7) 거짓 선지자의 미혹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V. 신약교회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대표적인 예

1) 고린도 교회의 분쟁 ( Divisions in the church)

-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가 ( 베드로 ) 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주의자들(No other Gospel)

-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이다.
-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찌었다.
- 바울이 전한 복음은 ( Paul called by God)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3)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위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의 그릇된 교회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 forgive us all our sins)
-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 nailing it to the cross)
-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밟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4) 천사숭배 및 환상주의

-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 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 하느냐
-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 5) 거짓된 교훈에 대한 경고 ( warning against false teachers) 즉 이단의 불건전한 교리
-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 A pure heart)과 선한 양심 ( good conscience)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 A sincere faith) 나는 사랑 이거늘
  -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음이니라
- 6)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권면 ( Paul's charge to Timothy) 즉 속이는 자에 대한 경고
-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서 배운 것을 알며
  - 또 네가 어려 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 네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 전도인의 일(the work of an evangelist) 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 7) 이단의 어리석은 논쟁
-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 8) 이단 취급에 대한 충고
-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 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 9) 이단자가 받는 처벌
-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 또 자기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지위를 흑암에 가두셨으며
  -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 punishment of eternal fire)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 10) 이단자의 멸망
-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경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 이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 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 11) 니골라 당에 대한 경고

-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리 낸 것과
-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식원에 있는 생명수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 12) 사단의 회에 대한 경고

-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알라 불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

#### 13) 사단의 왕자

-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 하였도다.
- 또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 14) Jesebel(이세벨) 의 미혹과 음행

-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Jesebel을 네가 용납 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고
- 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15) 자칭 유대인들 (who claim to be Jews)

- 보사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VI. 마지막 대환란을 예언하신 예수그리스도

- 선지자 다니엘의 말 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이
-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며)
- 이는 그대에 큰 환난 ( great distress)이 있겠음이라 창세로 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리라
- 그대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회개시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 이시기에 패륜 행위를 저지르고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범한 이들에게는 이들의 이름이 지상에서 뺏히고 불과 유황이 이글거리는 영원한 불 못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평화와 사랑으로 악을 이길 것을 강조하신 하나님, 원컨대 이제는 이들에게 용서를 행하사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게 하옵시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 만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천지에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케 하옵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올 한해,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 를 이루는 거룩한 계묘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기고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뜻을 이룰 때 보다 많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의 성원에 덧입어 교회의 이름이 찬란히 빛나게 퍼져 나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듯 지금은 미약하나 교회 문서 선교부는 오늘 보다 나은 성과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성실히 다지어 나아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고문 제출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원과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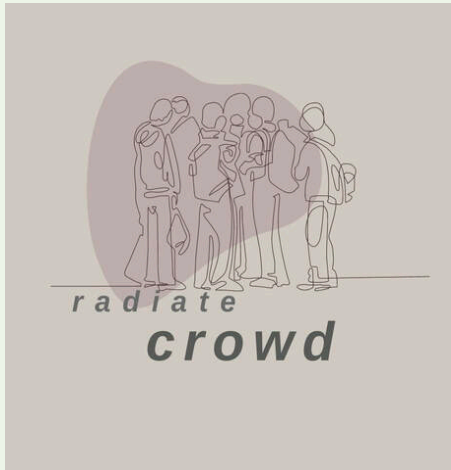
## 주일학교

영유아부(0-36개월) : 이희정전도사  
 유치부(만3-5세) : 곽은희전도사  
 유년부(1-5학년) : 이정민목사  
 Radiate - 중고등부 : 정태군목사

## 토요한국학교

교장 : 이성민집사  
 교감 : 김효진집사  
 교사 :  
 유치부 / 초등부

## Radiate Youth Ministry - 중고등부



### WHAT IS CROWD?

Crowd is a small group gathering led by some of the student leaders at Radiate. We want to simply pause in the middle of a busy and fast-paced weeks to engage in the Word and encourage one another in fellowship. Crowd seeks to foster a deepe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with each other by loving one another in obedience to His greatest commandment. Be sure to click the button below for more info on leaders, time and all the deets!

## 유년부(CM)

2022년 교육 표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유년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시편 119:105**

예배시간 11:00 - 12:30 소예배실

성경공부 12:30 각 반

찬양대 10:00 - 10:50 아가페룸

찬양팀 10:00 - 10:50 유년부실

기타반A/B 10:00 - 10:50 각 반

### 유치부

<b>2022년 교육 표어</b>	10:00 - 한국학교 "한글공부를 배워요"
<b>예수님따라 말씀따라 자라가요</b>	10:15 - 교사 경건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11:00 - 예배 경배와 찬양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대표기도 "마음을 모아 기도해요" 말씀선포 "쫄긋쫄긋! 말씀 들어요" 말씀암송 "말씀암송을 배워요" 헌금시간(기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광고시간(환영) "새 친구(생일축하)를 환영해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b>교육 목표</b>	12:00 - 공과시간 "반 별로 모여요(간식시간)"
♥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자라가요	12:20 - 귀가지도 "다음주에 또 만나요~!"
♥ 예수님의 지혜로 믿음이 자라가요	
♥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가요	

### 영유아부

<b>2022년 교육 표어</b>	10:00 - 10:45 : 교사 기도회 및 예배 준비
♥ 하나님을 꼭 닮은 귀염둥이 첫 예배 !	10:45 - 11:00 : 아이들 맞이 하는 시간
♥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장 아장 첫 걸음!	11:00 - 11:40 : 예배, 기도, 찬양과 율동
♥ 말씀과 찬양속에 첫 믿음이 자라나요!	11:40 - 12:00 : 간식 시간 및 Activity (마지막 주 생일 자녀 축하)
	12:00 - 12:20 : 공과 놀이 및 부모님들과 나눔
	12:20 - 12:30 : 선생님들과 함께 마무리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
	12:30 - : 귀가 시간

# 간 증 문

## 이 현 재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2 학년 이현재입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의 초대로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영적 여정에 큰 부분은 제 자신의 생각을 기독교 신앙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성숙해지고 세상의 믿음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학 결정에 대한 실망감에 직면했을 때 많이 떠오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노력과 결과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에 대한 기독교적 정당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 내가 노력을 하고 결과가 좋다. 하지만 이 좋은 결과는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2. 내가 노력을 하는데 도 결과는 안 좋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3. 내가 노력을 하진 않았는데 결과는 좋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4. 내가 노력도 하지않고 결과도 안 좋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다.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일이 잘되든 안 되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이겨내려고 애썼는데도 여전히 실망을 안고 있는 것이 억울해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밤 농구 게임 끝나고 집으로 운전하고 있을 때, 저의 이런 좌절감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 학년 여름 수련에 때 저의 그룹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대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죽음이며 우리의 기대는 그것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하신 이 결론을 통해 저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Hello. My name is James Lee, and I'm currently a senior in high school. I wasn't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but I accepted God as I kept coming to church after my friend invited me in elementary school. A big part of my spiritual journey has been trying to reconcile my own thoughts to Christian beliefs. As I've matured in my own thoughts and became more exposed to worldly beliefs, questions and doubt in God and my faith grew. So with the time I have today, I want to share a thought that has come up a lot as I faced some disappointment with college decisions that have been coming in, and how I found God through it all.

I thought of four scenarios of effort and outcomes, and the Christian justifications for each.

1. I put in effort and things go well. But apparently, it's not through my efforts that achieved this, but through God's grace.
2. I put in effort but things don't go well. This is somehow part of God's plan and for His glory.
3. I don't put in effort but things go well. This is understandably said to be because of God's grace.
4. I don't put in effort and things don't go well. This is my fault for not putting in any effort, and the outcome is God's way of teaching me.

The problem I had with this is that whether things go well or not, we are supposed to thank God for everything.



---

As I was feeling disappointed with the outcome despite my efforts, I didn't like that I still had to believe that God is always good. It frustrated me because it felt unfair that I was still met with disappointment after the effort I put in to overcome the obstacles God prepared for me.

But Thursday night, as I was driving home after a basketball game, I realized that my frustration shows how I'm taking God's mercy and grace for granted.

I remember in summer retreat in 7th grade, my group teacher said this about mercy and grace.

“We receive God's mercy when He saves us from something we deserve, and we receive God's grace when He blesses us with something we don't deserve.”

The important part about this is that we don't deserve either of them.

For we are saved not by our actions or our efforts but by God's mercy and grace.

Ultimately, as sinners, the only thing we deserve is death, and our expectations should reflect that.

For it is through God's grace that we can enjoy His blessings.

So feeling that it's unfair for God to take credit for things that go well is a sign that God's blessings have become an expectation in my life rather than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Through this conclusion that God revealed to me, I instantly felt more appreciation for everything that He has done for us, whether the outcome was good or bad.

I've been told not to take God for granted many times in church, but now genuinely feeling that I was thinking that way, I am able to see God more clearly.

I hope that everyone can also understand that our efforts are for God, not for good outcomes.

Our outcomes are to glorify God, not ourselves. And our gratitude always belongs to God, no matter the outcome.

Let us not take God for granted.

Thank you.



Hello everyone!

As I prepare to graduate college and transition to the next stage of my life, I wanted to briefly share with everyone just a quick reflection of these past four years, the things I've experienced, and ultimately how the Lord's provision was over me every step of the way and how he worked through my life for his glory.

When I do some reflecting on these past four years, there are so many fond memories that come to mind: All nighters at PCL, 3 am McDonald's runs, and doing random spontaneous things with my life group are all things that I know I'll miss once I graduate. But beyond that, the entirety of college was definitely one of the most formative times in my life and Looking back, I never would have expected all of the highs and lows, the victories and the hardships, and the personal growth that I've experienced in these past four years.

Coming in as a freshman, My primary focus revolved around my ambitions for school and forming genuine connections with others, leaving little room for other thoughts or considerations. What God's will and plan for me was definitely never in the picture for me at the start, and I now realize that I had a lot of pride, thinking that I could set out to accomplish these things that I wanted on my own. I needed humbling, and I got it.

A lot of trials came to my way throughout my college run. I was tested in many different aspects, and more often than not, I thought it was too much for me to bear. There were countless times

---

when I resented the Lord for these hardships, but eventually I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these tests were what I needed to mature and lay down the notion that I was in control over my life. Now that I have the hindsight, I know that God's provision was over my life in so many ways, even though I was blind to it at the time. Now I know I have so much to be thankful.

Some of the big ways that I've personally experienced God's provision for me is materially and in my finances, in my relationships and leadership He's placed around me, and in this church community that He's so intentionally placed me in. In all of these areas, the Lord went far above and beyond what I thought I could create for myself. And although leaving this season already feels bittersweet, I also feel incredibly blessed that God has called me to stay here in Austin at least for the time being. I'm so excited to serve in more ways and to seize the opportunities that I'll inevitably have to be vocal for the gospel and continue to pursue the Lord. And I'm sure that in this new stage I will be faced with unfamiliar responsibilities and even more difficult trials will come my way, but through my experiences in college, I can be reminded that because God has provided for me without fail in the past, he will continue to do so over and over again. I can trust that He is working for my good always and that His ways are higher than mine. That even when I forget because I am so fickle and broken, He still will not fail to provide.

And that's what I'd like to end with as I address the underclassmen: cherish those 3 am McDonalds runs because they won't last! find accountability and people that you can confess your sin to and grow with. But most importantly, trust the process and trust God. Nothing good comes without sacrifice and hardship. Recognize that when tests and difficulties come your way, you will not be met with more than you can handle. Maybe the purpose of those tests is to build your character but also so that later you can testify to his goo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s you in your life! Seek his input on the major decisions in your life and submit in obedience to Him. Recognize that no matter what he will provide!

I'm so thankful for what God has done for me in this past four years and super excited for what He has in store for me as I continue to be a part of this awesome church and this awesome ministry! Thank you all for reading!



# 목장 소개

## - 시온 -

(전병훈 목사 / 김윤지 목녀)

시온 목장은 8년 전에 갈릴리 목장(김문석 장로님 목자)에서 분가된 후, 현재까지 여러 목원 가정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개의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30-40대 가정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장 아이들은 막 돌을 지난 유아부터 10학년에 올라가는 고등학생들까지 총 16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다 함께 모이면 34명의 대가족입니다.

저희 목장은 오랜 기간동안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 나가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저희 목장의 목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매달 두 번씩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 찬양과 말씀 나눔, 그리고 기도를 통한 중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번 모임때마다 목장식구들의 생일이 있을 만큼 많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해 주고, 베이비 샤워, 돌잔치, 입학과 졸업 등 여러가지 행사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삶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목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눔의 교제를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기는 했지만, 팬데믹 이후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목장 식구들과 다시 실제로 모임을 가지면서 느꼈던 기쁨과 감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금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한번 목장 모임을 갖고 비록 예전보다는 모임의 횟수는 줄었지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중보해 주면서 함께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원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가정들도 있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의 신앙의 연륜은 다르지만, 저희 모두는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 목장은 2가지 작은 목표를 가지고 목원 한명 한명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첫째, 목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1인 1사역” 하기.
- 둘째, 목장 모임을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준비하기. (자신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 것은 가장 복된 일종의 하나임을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기보다 보기에 작은 결단, 작은 실천일지 모르지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교회에서나 목장에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목원 가정들이 동참해 주셨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후 지난 5개월 간의 목장 생활을 되돌아보며 느끼는 목장의 가장 큰 변화는 목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 점이고 그로 인해 목장과 교회 활동에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중보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중보기도의 힘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목장은 오랫동안 태국에 거자씨선교를 사역하시는 박재구/정수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과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으며 멀리서나마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줌으로 선교사님을 모시고 목장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간증들을 가까이 들으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박재구/정수진 선교사님을 더 후원하고 섬기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부족한 목자 목녀를 섬겨주며 많이 채워주는 목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 모임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목장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실 우리 시온 목장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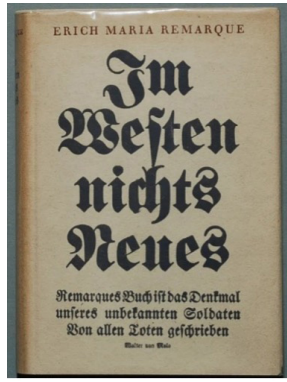
## 김상보



Im Westen nichts Neues (서부 전선 이상 없다)  
등급 R. 2022. 액션/전쟁/드라마. 2h 27m

영화는 파울 바우머(펠릭스 캄머러)가 참전하기 전, 하인리히 게르버라는 어린 병사가 전방에서 사망하는 상황이 먼저 그려집니다. 시체는 매장됐으나 군복은 세탁과 수선을 거쳐 새 병사, 파울의 품에 주어집니다. 전쟁 풍경을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전부터 반복해 대체되어 온 죽음의 빈자리를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 전선 이상 없다》(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독점 영화로, 1930년 판과 1979년 판에 이은 세 번째 영화화입니다. 에드바르트 베르거가 감독을 맡았고 다니엘 브뤼, 알브레히트 슈흐가 출연하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국제 장편 영화상 부문에서 독일 출품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작은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적이 있었던 독일인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터

에 사실상 끌려온 주인공이 전사한 날의 독일군 상황 보고가 ‘서부 전선 이상 없다’였다는 설정을 통해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편 전기소설은 작가가 지원병으로 종군하여 얻은 전쟁 체험의 소설화로서 전쟁의 참상·무의미와 전쟁과 생의 문제를 다정다감하고 젊고 미숙한 청년의 심리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또 서정적 정감을 실어 묘사하고 있으며 전후 10년을 지나 바야흐로 평화에 대한 희원(希願)과 반전사상이 대두되고 있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발표되기가 바쁘게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각국어로 번역되고 영화화되어 소설이 6백만 부 이상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Dieses Buch soll weder eine Anklage noch ein Bekenntnis sein. Es soll nur den Versuch machen, über eine Generation zu berichten, die vom Kriege zerstört wurde - auch wenn sie seinen Granaten entkam.

이 책은 고발도 아니고 또 고백도 아니다. 비록 포탄은 피했다 할지라도 역시 전쟁에 의해서 파괴된 어느 시대를 보고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1929년 초판 서문>

레마르크는 독일태생의 소설가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후에 나치가 집권하자 먼저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지냈고, 후에 나치가 몰락하자 유럽으로 돌아와 스위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레마르크의 소설은 이 밖에도, 2차대전 직전의 파리를 배경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 “개선문”이 있으며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리스본의 밤’, 2차대전 후반의 동부전선 병사들을 다루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도 명저로 꼽히며 한국 내에 번역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1차대전의 서부 전선을 다루고,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2차대전의 동부 전선을 다루는 소설로 둘 다 빛나는 명저입니다. 그 외 작품으로는 1차대전 종전 후 돌아가는 병사들을 다룬 다룬 ‘세 전우들’, 귀향한 병사들의 방향을 그린 ‘귀로’ 등이 있습니다.



원작의 독일어 제목은 ‘Im Westen Nichts Neues’입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서부 전선, 별다른 소식 없다’ 정도인데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감안해 볼 때 ‘서부 전선, 별거 없다’가 더 역사적 사실에 부

합해 보입니다.

1차 세계대전 3년째, 파울 보이머(펠릭스 카머러)는 학교 동급생들과 입대를 결정합니다. 애국심 등 거창한 명분 보다는 그저 동급생들이 군에 입대하는 데 자신만 고향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파울을 비롯한 입대 군인들을 한껏 고무합니다. “우리의 미래, 독일 제국의 미래는 가장 위대한 세대 손에 달렸네, 나의 친구들이여, 그게 바로 제군들이세!”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신참 병들은 환호합니다. 하지만 전선의 실상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고 병사들은 전쟁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채 집에 보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입대할 때만 해도 적국인 프랑스 파리로 진격하겠다는 결기가 충만했지만, 전선에선 집에 보내 달라고 사정하니 서부전선의 실상, 아니 전쟁 자체가 ‘별거 없는’ 셈이 되는 거겠지요.

역사적 사실을 한번 돌아보자면 1차 세계대전은 19세기식 통첩을 주고받으며 시작했지만 전쟁 양상은 일찍이 인류가 겪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연발식 자동 기관총의 발명이며 이 기관총의 살상력은 당시로선 그야말로 가공할 수준이어서 도무지 서로가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서로가 참호를 파고 웅크리고 있다가 공방을 벌이는 참호전의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에서는 애국심이고 뭐고 살아남기 급급해지고 그저 서로가 다른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죽고 죽이는 파멸로 통하는 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며 실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적이 있는 작가 레마르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전쟁의 공허함을 고발하며 연출자인 에드바르트 베르거는 작가의 시선을 영상 언어로 옮겨냅니다.



특히 참호전과 1차 세계대전 특유의 진창 싸움의 연출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보병들 사이의 전투뿐만 아니라 화염방사 병, 탱크와 초기형 전투기 등을 등장시켜 전쟁 기계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병사들이 느꼈을 공포감과 압박감을 그대로 재현해 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생샤몽 전차 장면은 1차대전 당시 마땅한 대전차 무기가 없는 보병 입장에서 전차의 무시무시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

휴전회담 등에서 보이는 지도부의 갈등과 외교 싸움, 지휘관과 병사들의 생활 수준 차이 및 절정에 달한 순무의 겨울을 보여주며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사실적이고 뛰어난 전투 묘사가 이어지지만, 놀랍게도 다른 전쟁 영화들과 다르게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작중 시간대가 겨울이고 이를 잘 묘사한 것도 한몫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에 차가운 톤을 사용하고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냉소적인 분위기를 풍겨서 전쟁의 비극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불쾌함을 유발함으로써 적나라한 폭력적인 묘사를 단순히 즐길 요소로 사용하지 않고 반전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훌륭하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영화화된 1930년 작품과 1979년 작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것과 달리 본작은 독일에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기도 합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두 작품이 시대적으로 독일에서 제작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독일에서 자력으로 자국의 원작을 성공적으로 영화화한 것입니다. 세 영화 모두 훌륭하지만 2022년 작품은 독일 입장에서조차 상당히 의미 있는 리메이크입니다.

이러한 높은 완성도로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9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전쟁 영화로서는 '1917' 이후 3년 만에 노미네이트 된 작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원작의 모국인 독일 현지에선 해외에 비해 호평이 아니며 비평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더 가디언 독일 지국장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 영화들과 달리 원작을 상당한 수준으로 각색한 점이 호불호를 샀는지 아카데미 수상 이후엔 독일 언론 베를리너 차이퉁에서 아카데미 수상은 잘못되었으며 최악의 영화라는 강도 높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슈피겔은 오스카상을 받았지만, 모든 곳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영화는 아니며 독일에서의 비판이 가장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정권 시절 독일 기독교 민주 연합 정당 총서기로 활동했던 전 정치인 피터 타우버는 영화와 원작 책이 같은 것은 제목뿐이며 별개의 작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제목은 주인공 파울이 죽어가면서 무전으로 서부 전선은 이상이 없다는 무전을 치며 끝나서 제목이 '서부 전선 이상 없다'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반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서부 전선에서 무고한 프랑스와 독일 청년들이 죽어가는 참혹한 장면이 매일 펼쳐지는데 이상이 있죠, 이상이 있어도 엄청난 이상이 있습니다만 조국 수호를 외쳐야 하는 군인 정신으로 서부 전선 이상이 없다는 무전을 날립니다. 이번 독일에서 제작된 이 영화에서는 이 시그니처 장면을 과감히 도려냅니다. 대신 동료 병사 중에 여자가 그려진 포스터를 참호 앞에 붙여 놓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며칠 후 마지막 전투를 하는 이 병사가 프랑스 참호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참호는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 지키던 독일 참호였습니다. 수백 미터를 전진하는 데 무려 40만 명의 양측 병사가 사망한 1차 세계대전을 함축적으로 담는 명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어이없고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 휴전 시간 15분을 남기고 벌이는 독일군의 마지막 진격전입니다. 현장 지휘관 프리드리히스(다비드 스트리에소브)는 자신이 지휘 관할하는 라티에르 전선이 독일 것이라는 프랑스로 상대로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전쟁은 끝났다. 수년의 희생과 고초 끝에 이젠 보상을 기대해도 좋다. 제군들이 여기서 이룬 모든 업적에 대한 추앙을 받겠지. 하지만 전우들이여, 군인과 영웅으로 환대받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 중요할 때 꼬리 내리는 겁쟁이가 되고 싶나? 병사들이여, 우린 전력을 다해 적을 칠 것이다.” 이 같은 비장함이 무색하게도 결과는 파국적이었습니다. 총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이 부른 희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멸이 예상됨에도 병사들을 전선으로 내모는 지휘관 프리드리히스에게서 묘하게 독일을 1차 세계대전에 한번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히틀러의 모습이 겹쳐 보이며 어쩌면 감독은 마지막 장면에서 독일과 전 세계 관객에게 히틀러의 허망한 야욕에 파멸한 독일의 과거를 다시금 각성하게 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고 완고하지만, 상황 파악 못하는 리더의 존재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영화 속 프리드리히스처럼.

세계의 호평과는 달리 독일 내에 비판이 난무했던 철없던 파울이 겪는 잔혹한 1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 이상 없다’를 추천해 드립니다.



# 교회 행사

AKPC 50주년 맞이 특별 부흥 집회

오스틴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2023년 3월 24일 창립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류응렬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찬양과 함께 부흥집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특히 3번째 주일날인 3월 26일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말씀으로 부흥회 설교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 인생의 지휘봉을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말씀: 사사기 3.31 “에훗의 후에 아낏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문명발달사의 발전 기저를 돌아보면 인류는 큰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응전함으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 큰 변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 또한 단 12명의 제자들을 들어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묵축업을 하는 이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지휘봉을 우리가 사용하면 단순한 지휘봉이지만 하나님께 그 지휘봉을 맡기면 거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D.L. Moody 가 캠브리지에서 설교했을 때 그의 문법을 지적하던 학생에게 “내가 엉터리 문법으로 매일 복음을 전하는 동안 최고의 지성으로 그대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되물었을 때 캠브리지 대학 전체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막대기, 평범한 돌맹이 하나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을 때 그 범상함이 특출함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적인 소수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ECO 텍사스 노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5/28-9/24)

**JUNE 4, 2023 Week**

**THOSE WHO NEVER HEARD THE GOSPEL**

**CAMERON BEATY**

Acts 4:12, Mark 16: 15-16, Matthew 9:37-38

Father in Heaven, We pray for those who have never heard the gospel of grace - the good news of Jesus and Him crucified, resurrected and One Day returning to make all things new. We ask that you would raise up missionaries among us who will go to the unreached peoples of the world. Give us courage and compassion to make Jesus known among our own neighbors. By the power of the Spirit, strengthen the witness of the church, whom You love. In the strong name of King Jesus, we pray.

Reverend Cameron Beaty, Peak Street Church - HPPC, Dallas, TX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좋은 소식', 은혜의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선교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열방의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긍휼함을 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JUNE 11, 2023 Week**

**THOSE WHO REJECTED JESUS**

**MARK RENN**

1 Timothy 1:19, John 12: 48-50

Father of mercy and reconciliation, we cry out to you on behalf of those who have rejected your Son. Distracted by the lies of the world and the evil one, they have convinced themselves of their own self sufficiency. Even within the Church, many have wandered from Your truth and have accepted the ways of the world as their own. All your people to repentance! Help them to see Your Way, Your Truth and Your Life as the only source of salvation and security for this life and the next. Amen!

Reverend Mark Renn, Pastor Pioneer Mission Community, Brenham, TX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독생자 예수를 거절한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세상과 악한 자의 거짓에 미혹되어, 스스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지어 교회 내 많은 이들 또한 오늘날 진리에서 떠나 세상의 가르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이생 뿐 아니라 내생의 구원과 안전의 유일한 근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UNE 18, 2023 Week**

**NEW TEXANS**

**BEN WANG**

Deuteronomy 10:19, Luke: 10:27

Dear Lord, Lord Jesus, help us by your grace, to banish barriers and doubts in our hearts and in our minds, that we may embrace and welcome sojourners and new Texans with joy and generosity. May you use us to pour out your love on the migrant crowd, welcoming them as our neighbors. We ask that you help us to love these new Texans with that same kind of love that you extend towards us and see them through your eyes, as we celebrate the many gifts they bring and to let our light shine so that the new Texans will glorify you. Lord, we also pray for our new communities - Bless their homes and families, and let your love and peace so shine within these communities that strangers become friends, even become your people. We pray this through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Amen!

Reverend Ben Wang, Pastor Mandarin Chinese Church, Highland Park Presbyterian, Dallas, TX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주의 은혜로 도우사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심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나그네 된 자들과 텍사스에 새로 이주한 자들을 기쁨과 관대함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무수한 이민자들에게 부으시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일한 사랑으로 이 곳 텍사스 이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비춤으로 이방인들이 친구가 되며,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UNE 25, 2023 Week**

**UNREACHED IN TEXAS**

**KAY ATCHISON**

James 2:8, Romans 15:2

Lord, we ask you continually remind us to love our neighbors and build them up in their faith especially in kingdom expansion and new church planting. May we be the pleasant aroma to you, God, as we offer ourselves in Your service to share Your Gospel, full of grace and love for all. Move us out of our comfort zones, Lord and empower us through the Holy Spirit, to be motivated to share our faith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new worshipping communities. Texas is a big state but you, God, are bigger than our vision, so give us heart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Give us eyes to see where we are called to make a difference in expansion of Your kingdom. In the powerful name of Your Son, to whom all authority on earth and in heaven has been given, Amen!  
Reverend Kay Atchison, Hardeman County Ministry, Hardeman, Co, TX

주님, 주께서 주신 계명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새로운 교회 개척을 향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복음 전파 사명에 아낌없이 드림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되 이를 통해 새로운 예배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텍사스가 매우 크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텍사스 주의 도심과 시골지역을 향한 마음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곳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선교통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 Mission Nicaragua

ABRIL 2023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2023년 체육복을 Donación 받다.)

하나님은 선교 동역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체육복 Donación 2023년 아이들 운동복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 아이들에게  
운동복을 입힐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  
십시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  
님께서서는 이번에도 우리 부부의 기도를 응답하시  
고 선교 동역자를 통해 체육복을 Donación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을 찬양합니다. 4학년 아이들 정원 가꾸기 수업  
2022년 지난 해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었던  
바나나가 2023년 2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수확  
한 바나나로 전교 학생들 모두 바나나 튀김으로  
(Plátano fritos) 하루 점심식사를 풍성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니카라과 라마나웃 크리스천 스  
쿨의 아이들이 짓고 있는 학업의 농사가 많은 열



(4학년 아이들이 농사지은 바나나)

매를 맺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업전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 - 선생님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간 아  
이들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카라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과 땅에  
어린아이들 모두 아프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라마나웃 크리스천 스쿨에 모든 학생들이 다  
치지 않고 모든 수업을 잘 마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수업전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



# 선교통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ABRIL 2023



(Baylor University Mission Team)

지혜로 공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기도이지만 한마디 한마디 따라하는 아이들의 기도에 간절함으로 하는 아이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베일러 대학교 선교팀 방문** - 지난해 10 월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Spring break 한 주간 방학동안 베일러 대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팀이 단기선교를 가도 돼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는거니? 아니요 인솔하시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계시니? 아니



(Baylor University Mission Team)



(Baylor University Mission Team)

요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니? 지금 공부하면서 선교를 위해 Café 에서 주유소에게 일하고 있어요. 말만 들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3/4~3/11 일 까지 Spirit Airlines 가장 싼 비행기를 타고 가장 긴 Layover : 24 시간을 보내면서 니카라과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뛰어 넘는 상상 이상의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영어 VBS 캠프와 신나는 스포츠 시간으로 저희 라마나웃 크리스천 스쿨아이들을 사로 잡았습니다.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아이들과 베일러 선교팀이 함께 감격의 눈물로 예배드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선교 기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위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니카라과 출신 MK 가 인도 하는 선교팀은 처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기간이었습니다.

### 기도제목

1. 코로나 팬데믹이후 침체 되어 있는 생명수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2. 라마나웃학교에 건축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이어지도록
3. 니카라과에 평안이 임하고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니카라과 선교사 김인선 신유선, 하민, 영민 드림

# 선교통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안녕하세요

11 개월 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4 월 5 일 페루에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루는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되고 발전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AMED 의 공과 집필진이 매주 모임을 갖고 2024 년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를 정하였고 공과 집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현장 강습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AMEDGLOBAL 의 목회자 연장교육 과정 중에 성경개론 과목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우양카요을 중심으로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정글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한 강좌가 4 월 12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2 년 전인 코비드 초기부터 안데스 산맥의 오지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김 성숙 선교사(아내)의 지도로 격 주로 줌으로 모였었는데 5 월 1-3 일에 리마로 사모들과 가족을 초청하여 수양회를 개최합니다.

페루성서공회에서 AMED 가 개발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교재들을 주일학교용 교재들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기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성실하게 섬기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성일 & 성숙 선교사 올림



페루성서공회의 서점(리마)에서 보급되는 AMED 의 주일학교 교재들

---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2023년도의 중반에 막 접어드는 초여름입니다. 혹시라도 더위로 인해 나태해질 수 있는 날들을 한여름의 빙과와 같은 예수님의 시원한 말씀들로 채워 가시는 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겨자씨 지면을 통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고창구: kingkids780@hotmail.com) 문서선교부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받은 복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으신지요? 행불행의 연속은 우리들이 삶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행불행... 그러나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주님과의 특별한 비밀을 이 겨자씨 지면을 통해 발설하십시오. 여러분의 글들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오고 또 지게 될 수 많은 계절처럼 겨자씨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원고로 자양분을 얻습니다. 자양분이 없는 나무는 말라버리듯 원고가 없는 겨자씨는 그 존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고와 또 그 원고를 나누고자 하는 사랑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Dear fellow Christian Members of AKPC! We seek for your original contributions to Mustard seed magazine. Let us build our tree of life in Christ together. Trees never be trees but just withered bush without nutrition. Likewise, Mustard will stay healthy only if the words of gospel and testimony will be supplied continuously. We all know our life is a woven cloth with joy and frustration. Sharing yours with others will strengthen our community with understanding, learning, and prayer. We are waiting for your contribution and your contribution will make a difference. God is good. Please send us your contributio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He is also seeking English editor for the Mustard seed magazine. Please step forward and be a part of all who inspire our church to grow every day.

1.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목: 문서선교에 관심있습니다’ 라고 해 주시고 아래 메일로 연락주세요.

2.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원고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을 알려드립니다.

3.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 로고”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 지 역 광 고

Kakao Talk ID: @hanyangmarket Email: austinhanyangmarket@gmail.com



Tel: 512.371.3199 Fax: 512.371.3250

6808 N. Lamar Blvd #A-110 Austin, TX 78752

## Tous les Jours

Austin



512-373-8080  
6808 N Lamar Blvd Suit B-115  
Austin TX 78752  
www.tljus.com  
tljaustintx@gmail.com

### Universal Motors/Services

Asian Imports & Domestic Service Since 1993

**David Chong**  
ASE Certified Technician

24 HR TOWING

A/C Service  
Brakes & Tune Ups  
Engines & Transmissions

7138 Hwy 290 E.  
Austin, TX 78723  
(512) 459-3939

## Cuppa Austin Coffee Shop

**\$1.00 OFF ANY DRINK**

9225 West Parmer Lane  
Austin, TX 78717

www.CuppaAustin.com  
512-382-6729




Questions? Comments?  
Find us on Yelp!

## A+SM

Dry Cleaners & Alterations

Same Day Service Available  
30+ Years Experience

8701 W Parmer Ln. #2122  
Austin, TX 78729  
Inside Artisan Apartments

(512) 249-9013

Mon - Fri 7am - 6:30pm  
Sat 10am - 2pm  
Sun/ Holidays CLOSED



**Anne Lee**  
Sales Agent

### Pohl Partners, Inc.

10800 Pecan Park Blvd, Ste 125  
Austin, TX 78750  
www.pohlpartners.com

c: 224.427.0925  
o: 512.335.5577  
anne@pohlpartners.com



전 수 중 공인세무사(FA), MBA  
**명성 세무·교육 LLC**  
Tel. (646) 525-5900

**Hightone Tax & Ed LLC**  
13800 Lyndhurst St. #135 Austin, TX 78717  
smpchun@gmail.com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 2023 AKPC 표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37:5

## Worship 예배시간안내

주 일 예 배	KM 1부	주일 오전 8:30
	KM 2부	주일 오전 11:00
	EM(영어회중)	주일 오전 11:00
	청년	주일 오후 1:00
주 중 예 배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오전 6:30
	화요광야기도회	화 오전 10:00
	토요무릎기도회	토 오전 6:30
교 회 학 교	영유아부	주일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CM)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YOUTH)	주일 오전 11:00
	토요한글학교	토 오전 10:00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9:45
	장년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7:30
	목장모임	매월 1회
	중보기도	목 오후 08:00



예수신학  
어스틴한인장로교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 512) 454-1727 / Fax 512) 454-6888

www..akpc.org / akpc@akpc.org